

메시치 크로아티아 대통령을 위한 만찬사

존경하는 메시치 대통령 각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저녁, 크로아티아 국가원수로는 처음 우리나라를 찾아 주신 각하와 일행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각하께서는 크로아티아의 희망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 안정, 그리고 적극적인 개혁을 통해 국가발전의 힘찬 도약대를 마련했습니다. EU와 NATO 가입도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 빠르게 추진하고 계십니다.

경제 또한 각하께서 힘껏 추진해 온 수출 확대와 투자 유치, SOC 건설 등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한 기간에도 여러 차례 우리 경제인들을 만난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크로아티아가 각하의 탁월한 지도력과 국민의 저력으로 크게 발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 두 나라는 이제 수교 14년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양국 간 우호협력이

더욱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크로아티아에 우리 상주공관이 개설되었고, 외교부 간 정책협의회도 가동되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두 나라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입니다. 경제·통상·조선·해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1998년 월드컵 4강에 오른 크로아티아 축구는 물론 두브로닉 항과 플리트비체 호수와 같은 문화·관광 명소에 대한 관심도 큼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긴밀할 것입니다.

크로아티아가 EU 가입을 통해 남동부 유럽의 핵심국가로 우뚝 서고,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양국은 꼭 필요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대통령 각하의 건강과 크로아티아의 발전, 그리고 우리 두 나라 국민의 우정을 위해 건배를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